

“문단 ‘이방인’ 걱정하고 쓴 작품 영화로 어떻게 나올지 기대돼요”

영화 '7년의 밤' 원작자 정유정 인터뷰
28일 개봉...장동건 파격연기 기대
감독과 작품 주제·관점 의견 나눠
차기작 판타지 소설 집필 중

“소설을 영상의 언어로 새롭게 재현한 게 영화잖아요. 영화의 창작자인 감독님이 원작 소설을 어떻게 영화화했는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오는 28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7년의 밤'은 정유정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가 원작이다.

합평 출신 정유정 작가는 2007년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로 세계청소년문학상으로 문단에 나온 뒤, 발표하는 작품마다 화제를 낳으며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로 발돋움했다. 특히 사이코패스 인물을 그린 '종의 기원', 사람과 개에게 전염되는 인공공통전염병을 소재로 한 '28'은 작가의 이름을 확실하게 대중에게 각인시킨 소설이다.

사실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영화는 일반 시나리오 영화보다 작가에 대한 기대감, 탄탄한 스토리, 해석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기대를 갖게 한다. 이번 정유정 작가의 원작 '7년의 밤'도 그렇다.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기며 긴장과 스릴을 느꼈던 독자들은 소설이 어떻게 영상 언어로 구현될 지 궁금하기 마련이다.

기자는 최근에 정유정 작가와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멀리 분당에 와 있다”는 작가의 목소리는 많이 잡혀 있었다. “새벽까지 글을 쓰기 때문에 오전에는 조금 피곤하다”는 말에서 창작자의 고통이 짐작됐다.

왜 멀리 경기도까지 거처를 옮겼느냐는 물음에 정 작가는 “광주에 있으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면이 있는 분들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려운 것도 이유”라며 “최대한 창작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유배 아님 유배’를 스스로에게 강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소설 창작이 절대적으로 자신과의 싸움임을 전제한다면 작가의 말은 절로 수긍이 갔다. 작가는 지난 2009년 '내 심장을 쫓아'로 1억 원 고료 제5회 세계문학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로부터 '강렬한 주제 의식과 탁월한 구성, 스토리를 관통하는 유머와 반전이 빼어나다'는 평을 들었다. 수상 이후, 작가는 다른 작품 발표 없이 오로지 장편 '7년의 밤' 집필에만 몰두했다.

소설은 7년의 밤 동안 아버지와 아들에게 일어난 슬프면서도 통렬한 이야기를 기본 줄거리로 한다. '인간의 본성을, 심연을 들여다본다'는 의도와 맞게 작가는 실수로 인한 살인이 불러온 파멸, 선과 악 등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영화 크랭크인하기 전에 추창민 감독님을 비롯한 스태프들과 만난 적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의도로 소설을 썼고, 인물을 설정했는지 주로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죠. 또한 상징이나 장



영화 '7년의 밤'의 한 장면. 작은 사진은 소설 '7년의 밤' 표지.



정유정 작가

치, 악인에 대한 관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어요. 무엇보다 감독님이나 배우들이 워낙 유명한 분들이라 좋은 영화를 만들 거라 예상합니다.”

추창민 감독에게 '7년의 밤'은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이후 6년 만에 발표하는 신작이다. 당시 광해군에 대한 이중적 평가를 역동적인 스토리와 정밀한 영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화는 우발적 살인을 저지르게 된 최현수(류승룡)와 딸을 잃고 복수를 계획하는 오영제(장동건)의 7년 전 진실과 이후 이야기를 그린다. 지금까지의 켈들한 이미지에서 탈피해 색다른 감정 연기를 선보이는 장동건과 두려움과 복수, 죄책감 등 진폭이 큰 연기를 펼치는 류승룡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정 작가는 “7년의 밤”을 쓰던 당시, 인권의 아파

트 단지에서 아동이 실종돼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아파트마다 전단지까지 붙여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 전에 구상을 해왔던 모티브와 끔찍한 살인사건이 오버랩 돼 쓰는 내내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 작가의 소설은 낱살고 충격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또한 탄탄한 문장과 촘촘한 서사, 신비로우면서도 통렬한 이야기는 기성 작가들의 작품과 차별된다. 치밀한 자료조사와 압도적인 상상력은 “역시 정유정”이라는 찬사가 따른다.

“한국 문단에서 통용되는 주류 방식이 저와는 맞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스스로 ‘이방인’이 되기로 작정했고 저만의 방식으로 소설을 쓰기로 결심했죠.” 정 작가는 데뷔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설정한 문법대로 소설을 쓴다고 한다. 일반적인 문단 데뷔는 국문과나 문예창작과에 진학해, 신춘문예나 문예잡지로 등단하는 게 보편적이다. 그러나 그녀는 문학 관련 학과를 나오지도 않았고 신춘문예 출신도 아니며 더더욱 문학과는 전혀 관련 없는 간호학(광주기독교대학교)을 공부했다.

정 작가는 현재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다. 죽음 앞에선 인간의 선택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제 나름의 관점으로 풀어내고 싶다”는 것이다.

이달 안에는 인터뷰 전문가인 지승호씨와 대담을 나눈 인터뷰집이 나올 예정이다. “제 소설 작품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경지에 오른 작가는 아니지만 기존의 작가들과 차별되는 지점이 있어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아마도 문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나름의 문학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독자들 입장에서선 위안이 되나 봐요.”

또한 오는 5월에는 2016년 발표했던 '종의 기원'이 미국과 영국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 '펜겐' 출판사에서 우리나라 작가로는 처음으로 한국 작가의 책이 발간된다고 한다. 자신만의 작업으로 개성있는 소설을 펴내고 있는 정유정 작가. 벌써부터 그녀의 차기작, 그리고 개봉할 영화가 궁금해진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으로 상처 달랜 작가들

이미란 전남대 교수 등 '치유의 글쓰기' 번역 출간

“우리는 질병을 얻으면서, 세상과 유리되고 몸과 마음의 통중에 시달린다. 삶이 혼돈으로 보이는 이러한 시기에 글쓰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공간을 견디고 극복하며, 우리의 삶에 의미와 일관성의 감각을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투 운동 확산과 맞물려 치유의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글쓰기를 매개로 치유의 문제를 모색하는 번역서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

소설가인 이미란 전남대 교수와 서영대 김성철 간호학과 교수가 미국 작가 루이즈 디살보의 '치유의 글쓰기'(경진출판)을 번역 출간했다.

버지니아 울프의 연구자로 알려져 있는 루이즈 디살보는 현대 칼리지의 석사 과정인 MFA 창작 프로그램에서 회고록을 가르치는 저명한 교수다. '치유의 글쓰기'는 저자의 대표작이며 가장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책이다.

디살보는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서의 글쓰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춘다. 특히 버지니아 울프, 헨리 밀러, 마르셀 프루스트, 오드리 로드 등 상처를 입은 작가들이 글쓰기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명



이미란 교수

해, 초보 작가들뿐 아니라 전문작가들에게도 영감을 준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치유로서의 글쓰기'에서는 글쓰기가 어떻게 치유를 돕는지 조명한다. 저자는 글쓰기를 통해 고통과 상실, 슬픔에 형태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자아가 주도권을 찾고 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2부 '과정/프로그램'에서는 글쓰기 단계를 설명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부딪치는 정서적, 현실적 문제의 극복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3부 '글쓰기를 통해서 상처입은 영혼'에서는 상처입은 상처입은 몸과 영혼에 대한 글쓰기의 기법과 가치 등을 이야기한다.

이미란 작가는 “상처입은 몸과 마음이 겪는 고통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글을 쓰는 것은 미지의 영역에 들어올 다른 사람들을 안내하고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

황석영 “미투, 사회운동 되길...나도 반성”

'르 클레지오 대답'서 밝혀

“미투는 게 만인이 공감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분노, 수치감, 모욕감 이런 것들이 일상 속에서 묵구멍까지 차올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심화돼서 토론이 좀 더 심화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반성할게요.”

소설가 황석영(75·사진)은 지난 12일 저녁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열린 '2018 교보인문학석강-르 클레지오·황석영 특별대담'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뜨거워진 '미투'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그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며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받은 억압에 대해 얘기했다.

이 자리는 노벨문학상(2008년)을 받은 프랑수아즈 장-마리 귀스타브 르 클레지오(78)가 서울을 배경으로 한 소설 '빛나-서울 하늘 아래'의 프랑스어판 발간을 앞두고 방한하면서 마련됐다. 르 클레지오는 최근 이슈인 '미투'



황석영

와 성폭력 문제에 관해 “여성들이 독립하지 않는 한, 남성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남북관계의 해빙과 평화 분위기도 주요 주제로 다뤘다. 향후 전망을 묻는 질문에 르 클레지오는 “황석영과 나는 이미 평화열차를 타고 판문점을 넘어 파리로 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답했다.

황석영은 “2008년 대담에서 내가 제안한 것인데, 형이 얘기를 꺼냈으니 할 수 없이 자세히 설명해야겠다”며 이 계획을 소개했다.

“그때 실제로 추진하고 있었어요. 세계 유명 작가들을 태우고 베를린 같은 곳에 가서 평화선언을 하고 다시 내려와서 DMZ 가운데 놓고 거기에 평화공원, 평화박물관을 만드는 겁니다. 내년이 3·1절 100주년인데, 8·15를 기점으로 기차를 만들어서 같이 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광산구립합창단 신임 지휘자 21일까지 모집

광주 광산구가 광산구립합창단 신임 지휘자를 공개모집한다.

2000년 창단된 광산구립합창단은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한 남녀혼성으로 매년 정기연주회, 국제교류음악회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와 사회복지시설 대상 재능나눔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응모 자격은 ▲음악전공 학사학위 이상 취득

한 자로서 합창단 지휘경력이 있거나 지휘자로서 전문지식과 지휘능력이 있는 자(합창지휘 전공자 우대) ▲주 2회 정기연습 및 각종 공연을 위한 특별연습과 지휘 가능한 자 등이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평가로 진행되며 2차 때는 지휘 동영상 평가가 포함된다. 접수 마감은 21일 오후 6시다. 문의 062-960-8258.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